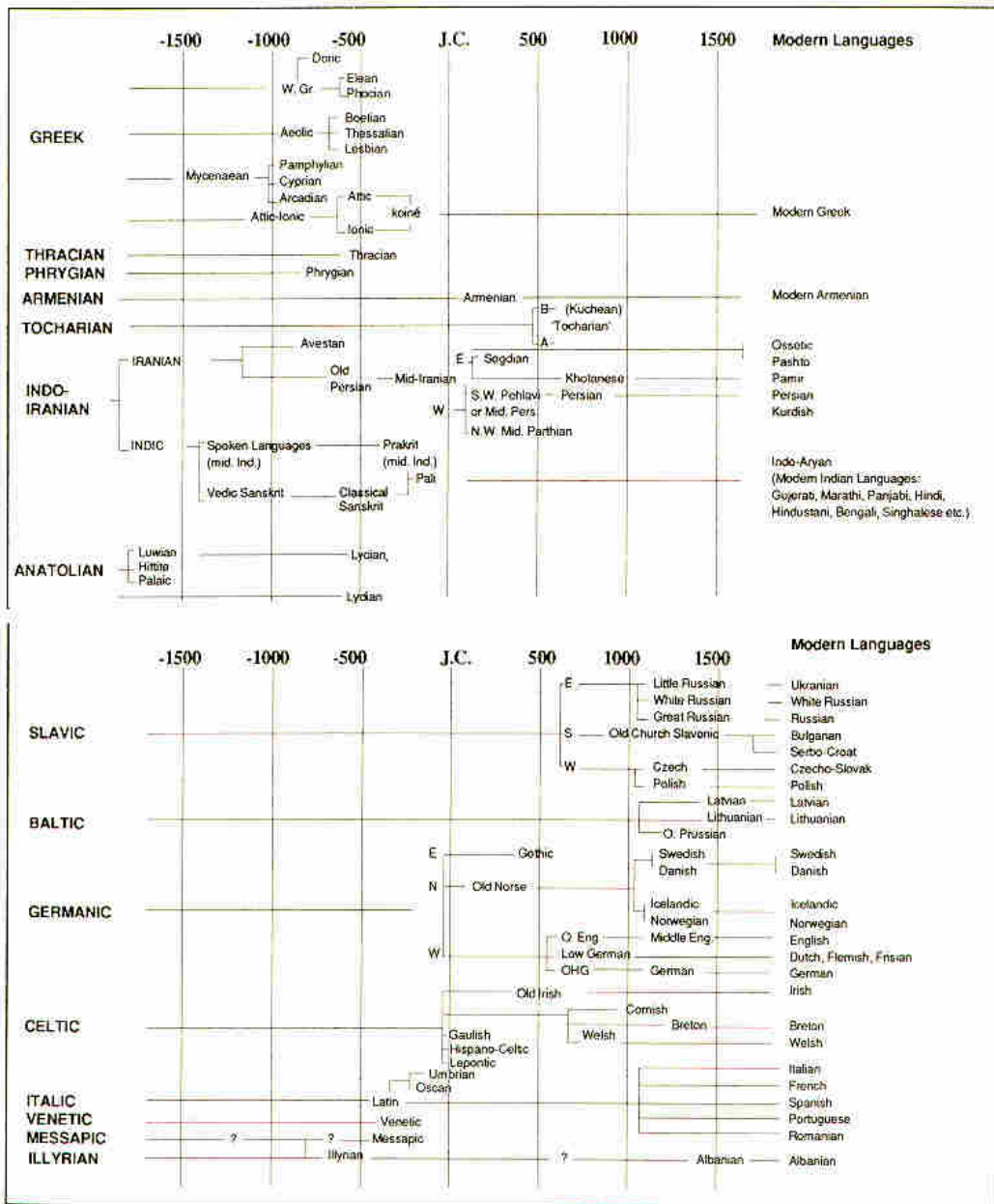


1)인도 유럽어족(Indo-European Langu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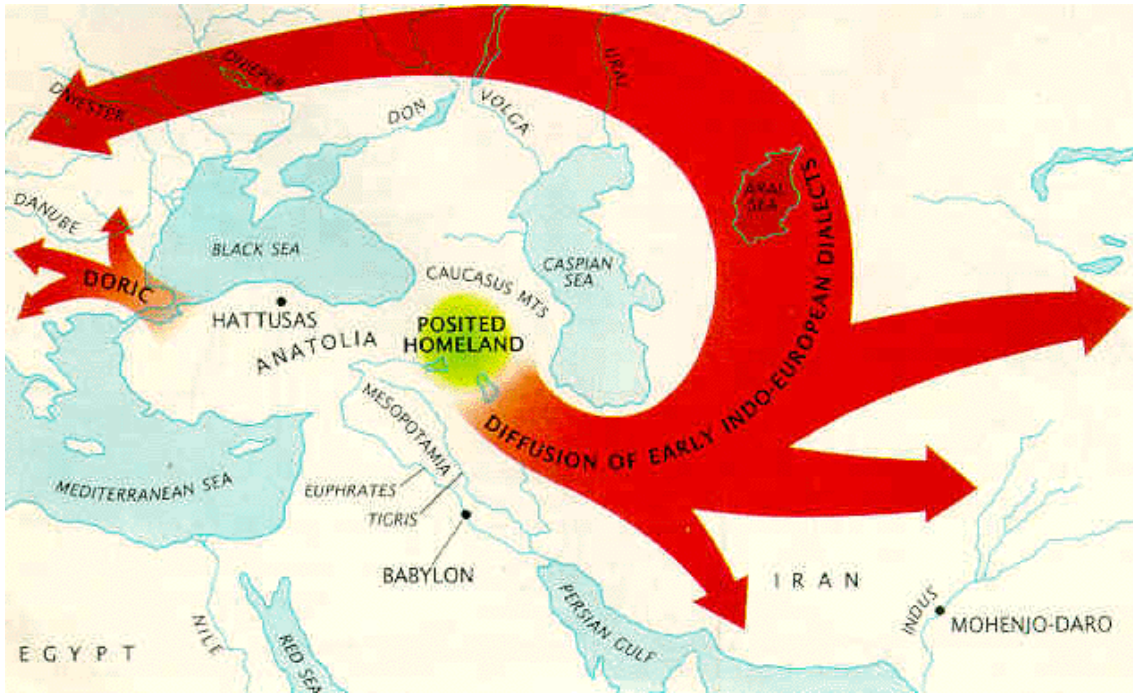


Indo-European 이라는 용어는 국민(People)이나 문명이 아니라 언어, 단지 언어만을 고유하게 지시한다. 주로 인도(india) 또는 유럽(Europe)—따라서 인도유럽어라는 이름—등의 고대 세계에서 발견된 많은 언어들에 적용되는 이 용어는 의사(physician)이며 물리학자(physicist)인 Thomas Young(1773-1829 년)에 의해서 만들어져 나타났다. Quarterly Review(1813년 10월) 제 10 권에 보낸 기고문에서 그는 새로운 조어(coinage, 造語)라는 어떤 언급도 없이 그 낱말을 사용한다. 그 단어는 특별히 언어의 한 군(family, 群)을 가리키기 위해 고안됐으나, 언어들에 가리키는 것으로서의 그 단어의 사용과 그리고 어느 주어진 시기에 문제의 언어들에 말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이런 언어들에 본디 말했던 자들에 의한 그 단어의 적용을 구분하는 것은 아주 힘들었다. 이 낱말에 상응하는 독일 용어는 ‘Indo-Germanic’이다. 게르만(독일) 학자들은 불행히도 마치 게르만인들(the Germans)만이 단지 진짜 ‘Indo-Germans’인 것처럼 썼다. 그러나 게르만인들의 이런 견해는 대담하게 1945 년 최근까지 유지됐으나 그 이후로는 거의 들려오지 않게됐다. 몇몇 인도 유럽언어들은 고대에서는 소아시아에 존재했다. 그리고 인도 또는 유럽의 모든 언어가 어느 때든 그 정밀한 의미에서 그 레벨(Lebel)의 장점



을 취했던 것은 아니다. 현대 인도-유럽언어들, 특히 Italic과 Germanic 하위 나뉘들이 세계에 두루 퍼져있다(위 그림관련 125쪽 참조).

1-1)가능한 근원들.—인도-유럽언어들은 시간의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했던 그것에 관한 기록들을 지니지 못하는 공통 재원(common source)의 후손들이라는



가정 하에서만, 즉 빌려움이 아니라 물려받음(inheritance)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공통의 어떤 음성학적이며 형태론적이고 구문론적이며 동사(즉 어휘)적인 특색들을 인도-유럽어들은 소유한다. 그래서 역사적인 증거들로부터 빌려온(차용한, borrowing, 借用)공통의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tobacco, coffee 또는 Potato 등의 공통 단어들과는 대조적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e^kuo- (만약 행위자라면 즉 만약 주어 용법이라면 -s를 덧붙힘) 단일한 재원으로부터 그것들을 파생시키는 것을 제외하면—여기에서 앞에 붙은 별표 ‘*’는 그 단어는 단지 현실적으로 기록된 낱말들의 비교와 역사에 의해서만 알려진다는 것 나아가서 이런 기록된 단어들 모두는 공통의 의미 영어 ‘horse’로 알려진 털이 많은 네 발 달린 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가리킨다—, 산스크리트어 aśva-s, 페르시아어 aspa-, 그리스어 ἵππος, Illyrian Ecco, Tarentine ἵκκος(아마 Messapic), Gaulish Eppo, Irish ech, Welsh ebol, Gothic aiha, Latin eqqus, Umbrian ekvine(?) 이라는 사실을 결코 설명할 수 없다. 크고 무거운(heavy draught)말 또는 샤이어(shire) 산(産) 말 또는 아랍족속의 말 또는 스텝지방의 말 등의 동물학적인 분류에 관해서는 말해지지도 않으며 어떤 함축도 지녀지지 않는다. 그러나 *e^kuo-는 집에서 길러지며 그리고 완전무장한 전사가 타는 것은 아니지만 타기 위해 또는 전차를 끌기위해 또는 경주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비록 그 해석에 있어서는 일치하지 않지만 어휘 뿐만 아니라 문법에 있어서의

이러한 표본은 기원전 3 번째 밀레니엄에 인도-유럽어 라는 이름이 거기에 편리하게(conventionally) 적용되는 언어 하나 또는 어떤이에 따르면 관련된 방언들의 집단이 존재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많은 량의 증거들이 있다. 이 언어의 더 오래된 재원은 헵어와 셈어 그리고 아마 코카서스인의 언어(**Hamitic and Semitic and perhaps Caucasian language**)일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빙하기를 피해서 알프스 북쪽 어디엔가에 정착하려고 유럽 북쪽으로 이동했을 때 또는 아마 기후악화로 인하여 우리가 역사 시작기에 발견하는 지점들로 즉 **Indic(Sanskrit), Persian, Armenian, Phrygian, Thracian, Illyrian, Greek, Albanian, Italic, Celtic, Germanic, Baltic, Slavonic** 등으로 역사의 여명기 이전에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거칠게 이주했을 때에 연결됐을 곳은 고대 지중해 연안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비록 인도-유럽어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어떤 추측들은 불가능한 지역을 자신있게 배제한다. 인도-유럽어는 산림이 우거진 스텝 지역이나 Baltic 지역이나 남부 스칸디나비아나 독일이나 발칸반도로부터 전개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원시(proto)-인도-유럽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익숙해졌던 동물군과 식물군(fauna and flora)의 자연을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기후조건들을 가리킨다는 것이 진실인 한, 언어학적 증거의 토대 위에서 중앙유럽일 것이라고 호의적으로 많이 말해졌다. 이 언어의 본디 고향을 규정하려고 했던 언어학적 고생물학의 인위적인 시도들은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심지어 고고학적인 증거와 언어학적인 증거들을 연결하려는 노력도 아주 성공적이라고 여겨질 수는 없다. 인도-유럽어를 초기에 말하던 이런 자들의 물리적인 특징들은 기원전 3000-2500 년의 두개골들이 인도-유럽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것들이라는 것이 보여질 수 있기 전까지는 무엇이든 인도유럽어적 사람들에 관해 주장될 수 없다--어떤 경우에서든 그 용어를 잘못 적용하는 것이다. 알프스 북쪽 글쓰기 역사에 관해 알려진 모든 것은 인도-유럽어 텍스트 한 장이라도 역사이전의 유럽피인 무덤이나 매장지에서 발견될 것 같지 않도록 만든다. 그러나 한 장도 있지 않는한 그리고 한 장이 있게 되기까지는 그 문제에 있어서의 추측이며 가정일 뿐이다.

1-2)발견들과 해석의 문제.—위에서 열거된 인도-유럽어의 목록은 20세기 초에 완성된 표준(canon)이다. 더 나아간 고대 인도-유럽어가 한번이라고 발견될 것이라고 상정되지도 않았으며 지금 상정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20 세기 첫 10 년에 Turkistan에서의 사라진 문명들의 연이어진 보고에 따라 베를린과 빠리에서 보내

진 탐험대들은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것의 두 주요한 다양함들이 보통 확인됐던 **Tocharish** 라고 불리워지는 인도-유럽어 수고 한 뭉치를 가지고 돌아왔다. 십여 년 후에는 새로운 놀라움이 제기됐다. 1912 년에 베를린의 앓시리아어 학자 Hugo Winckler는 고대 히타이트(Hittite) 제국의 고대 수도와 다른 쪽들로부터 췌기문자 텍스트 수 천 장을 획득했다. 빈클러의 사망 후에 그 텍스트들의 복사본을 재빨리 만들어, 그것들은 인도-유럽어 하나 이상의 증거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1917 년에 알렸던 Czech 앓시리아어 학자 F.Hrozhy에게 충실하게 그 텍스트는 건네졌다. 해석작업의 대부분은 E.Forrer, J.Friedrich, F.Sommer, A.Goetze, E.H.Sturtevant 등의 학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언어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시 일상적이고 포괄적이게 **Hittite(129쪽)** 라고 불리어진다. 인도유럽언어들 사이의 관계들과는 다소 다른, 마치 사촌언어 이기는 하지만 형제자매 언어는 아닌 것과 같은 관계를 인도유럽언어들과 맺고 있는 것으로 처음에는 상정됐다. 이런 견해를 유지하면서 그것에 **Indo-Hittites** 라는 이름을 붙였으나, 어떤 다른 인도유럽언어학자도 그 용어에 대한 평판을 유지하려들지 않았다. 따라서 Sturtevant에 의해 도입된 용어는 폐기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논쟁을 유발시켰던 다른 문제가 하나 있다. 모든 인도-유럽어들이 깔끔하게 두 구분된 범주들 중의 하나에, 즉 인도-유럽어 q 자음들을 **순음화**하는 것들(라틴어 quid, Oscan pid, Englisch what)과 인도-유럽어 k 자음들을 **치음화**(sibilized)하는 것들(Sanskrit śatam ‘hundred’) 중의 하나에 속한다는 것이 발견됐다. 이 두 하위 나뉘들은 각 각 (백을 의미하는 단어의 라틴어 형과 페르시아 형으로부터) **centum 언어**와 **satem 언어(124, 125, 131쪽)**로 불리운다. 이것이 로만스 언어에서처럼 독립적인 발전인가 아니면 그것이 방언 이전의 인도-유럽어 그 자체의 고대 방언적인 틈(cleavage)인가 라는 투의 문제 제기가 있다. 다음의 이유 때문에 후자가 더 선호될 것처럼 보인다: ㄱ)일련의 두 분리 사이의 완전한 일치가 있다는 것, 곧 k-소리들을 치음화(sibilize)하는 그런 언어들은 q-소리들을 순음화(labialize)하지 않으며, q-소리들을 순음화하는 것들은 k-소리들을 구개음화(palatalize)하지 않는다는 것; ㄴ)이런 상황은 루마니아어가 그 안에서 순음화와 치음화 이 양자를 지니는 로만스 언어들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예를들어 iăpă ‘mare’ (Latin equa)와 čieru ‘sky’ (latin caelum); ㄷ) 인도 유럽어에서 Satem 언어는 전설(front, 前舌)모음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에서 k-소리들을 치음화 한다는 것; ㄹ) 이런 이동은 인도-이란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발전인 인도-유럽어 ə(H로부터

터)의 산스끄리트에서의 ĩ(tigita-s ‘sharp’)에로 발전에 앞서는 한, 고대적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

원시-인도-유럽어의 방언적인 상태에 관한 배타적 또는 도그마적으로 진술된 어떤 추측이든 타당성을 결여한다. 원시-인도-유럽어의 어떤 표본도 훨씬 더 적은 그것의 ‘방언’들의 표본들을 이용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다양한 인도-유럽어 말이 기록됐으며 보존됐는가를 규정했던 등어선(等語線, isoglosse, 언어적 특징으로 지역을 나누는 언어지도상의 선) 또는 특별한 방언적 특징들과는 아주 상관없는 역사적 조건들과 사건-심지어 그런 회심(conversion, 이전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언어를 선택하는 사건)들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어의 갑작스러운 애매한 출현 가능성 또는 사실; 이전의 언어들을 대신함에 있어 “ 쇠퇴하는 문명들의 ‘외부적 proretariats’ ”의 성공과 실패; 표준 문어(literary languages, 文語)들이 발전되는 다른 시기들 사이의 연대적인 차이들; 언어학적 기교와 장치의 다른 정도들의 단순화 등 이 모든 것들과 다른 요소들은 그것들 자체로는 어떤 직접적인 값도 지니지 않고 쓰여진 현실적인 기록들로하여금 원시-인도-유럽어의 방언적인 상황을 드러내도록 한다. 따라서 역사적인 기간들로부터 도출된 비유(analogies)들을 사용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예를들어 (비록 그것이 마찬가지로 초기 역사적인 조건들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고대 그리이스 방언들의 그것과 같은 상황처럼 많은 방언들로 구성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인도-유럽어들은 그러나 그리이스에서처럼 공통 표준인 것의 확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언어들의 보급에 고도로 영향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유목민의 ‘전달성’(conductivity od nomadism, Toynbee), 곧 존재하는 방언들의 먼 그리고 폭넓은 분포에 의해서 그렇게 간주될 수 있거나 또는 인도-유럽어들은, 라틴어나 로만스 언어들이 그랬던 것처럼, 풍속(manner)처럼 가까운 곳에(next) 분포되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분리된 방언들로서 발전되는 단지 동질적인 말(speech)로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이런 추측들 사이의 어딘 가에 진실이 놓여있을 수도 있으리라. 기록된 인도-유럽어들의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분포 그리고 이것들 사이의 더 또는 덜 부분적이거나 완성된 어떤 등어선(isoglosses)의 잘-알려진 사실들 그리고 그것의 주변을 넘어서 하나의 언어학적인 지점(unity)의 지리학적인 중심으로부터 외부 확장과 식민지 언어 발전의 방해 사이의 고도로 그럴듯한 상호관계는 중심을 공유하는 분산 영역(concentric circles of dispersion)과 두번째와 세번째 물결에 의한 첫번째 것의 거의 전적인 말살과 동쪽에서 그리고 부분적으로 서쪽에서 세번째 물결에 의해 (Tocharich ‘breaker’를 제외하면) 위치와 상관없이(anywhere)말살된

두번째 것을 제안한다. 이런 물결들은 연대기적인 순서로 보면 아래와 같다: ㄱ) 원시-인도-유럽어 물결; ㄴ)centum 언어들의 물결; ㄷ)satem 특색들을 (부분적으로 독립적인 발전에 의해) 보여주는 언어들의 물결.

Hittite에 관한 놀라운 점은 충분한 히타이트어 텍스트의 발견이 해독이나 해석을 가능하게 하거나 히타이트어 관한 어떤 앎을 획득하게 할 수 있기 오래 전에 스위스 학자 Frendinand de Saussure와 Dane H. MØller에 의해서 사실 그 존재가 요청됐던 원시-인도-유럽어 안의 (구분되는 것으로서의 H₁, H₂, H₃과 같은) 그런 세 자음들을 인식하도록 결국 다그쳤던 (h, 중간에서는 h와 hh 라는 음소기호로 옮겨 써지는) 후두(laryngeal, 喉頭, 131쪽) 자음들의 현존이다. 결과는 인도-유럽어 모음 체계(특히 ē: ō: ə, ě: ǝ: nil의 선택과 ā, ǎ의 현존과 기능)의 크게 진전된 이론뿐만 아니라, (예를들어 *α εν(τ)-λα로부터의 그리스어 ἄελλα “windstrom”, Gothic winds, Latin uentus, Hittite hwantas; Greek ὄνομα “name”, 그러나 Latin nōmen과 같은) 그리스어와 아르메니아의 소위 ‘어두음’(prothetic, 語頭音)적인 모음들에 관한, 그리고 기식 자음과 비기식(nonaspirated, 非 氣息)자음들의(예를들어 Greek πλατύς 그러나 산스크리트 prthivi) 또는 유성자음과 무성자음들의(예를들어 Latin uiuidus, Sanskrit jīvatha-s) 까다로운 선택들에 관한 타당한 설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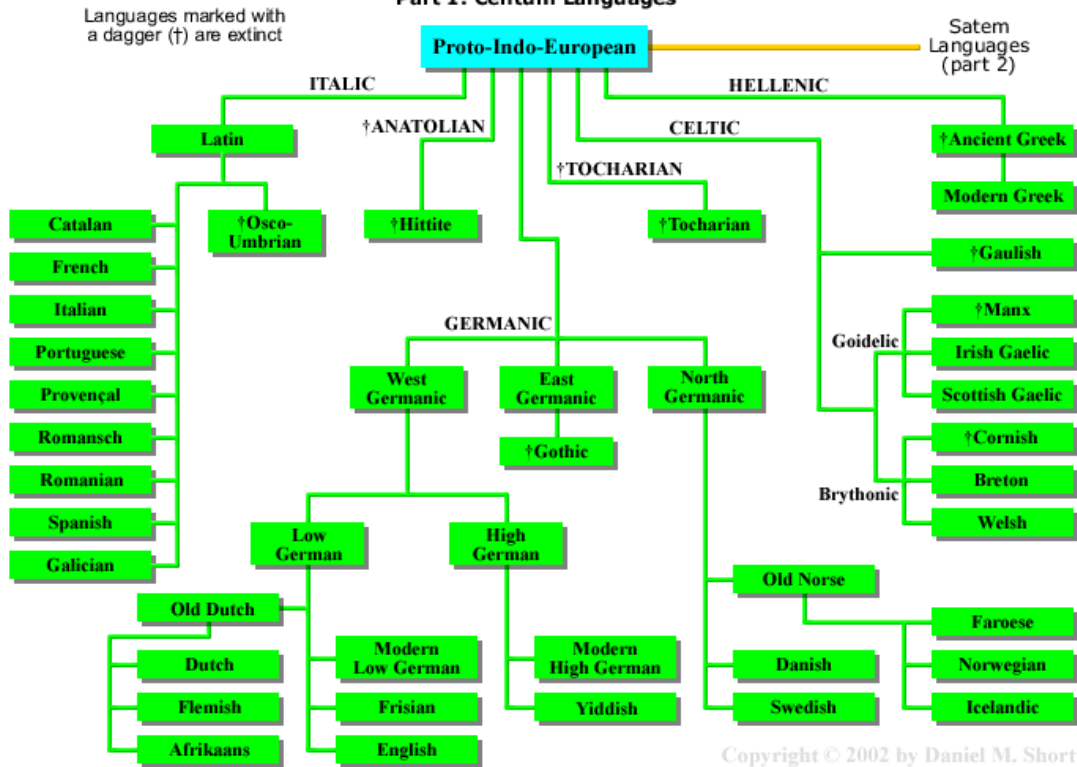
심지어 보다 더 중요한 결과는 토탈적인 갯 수의 음소들을 지녔다고 지금 믿게 하는 인도-유럽어 음성학적 체계의 토탈적인 재 구성이었다. 음소의 그 토탈적인 개수는 2의 제곱(power), viz. 2⁵; 곧 p b; t d; k g; qu gu; H₁ H₂ H₃; s; r l; m n; j ŋ; ě; H₁ 또는 H₂ 또는 H₃ 또는 j ŋ r l m n과 묶어지는 ě; r l m n; ĭ ũ; ī ū.

//과거와 현재 유럽 언어 대부분을 포함하는 그리고 이란을 넘어 인도 아대륙(subcontinent, 亞大陸)의 북쪽 절반으로까지 확장하는 커다란 그리고 잘 규정된 발생적인 어군에게 지리학적인 이유에서 주어진 이름이 바로 인도-유럽어(Indo-European)이다.

라틴어와 그리스어와 현대 유럽 언어들에 오랫동안 친숙했던 유럽 학자들에게 18 세기에 산스크리트어의 소개는 언어학적인 관계 개념에 관한 혁명을 일으켰다. William jones 경은 다른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19 세기 첫 10 년 동안 탐구했던 이런 언어들의 공통의 기원을 1786 년에 주장했다. 자신과 거의 동시대인인 Rasmus Rask와 더불어 처음으로 올바르게 인도유럽어군의 관계와 비슷함들을 봤던 Franz Bopp에 의해서 1816년 비교문법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시작됐다. 양자 모두 소멸된, 두 개의 새로운 가지들 곧 Anatolian과 Tocharian이 20 세기에 더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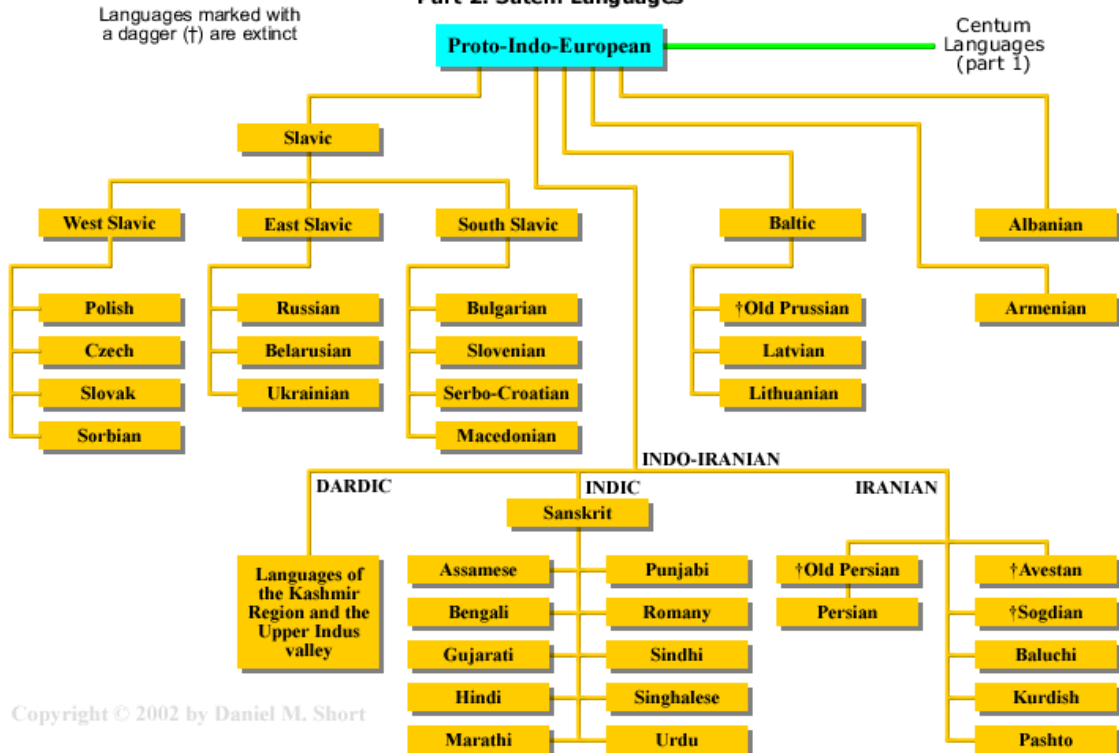
Indo-European Language Tree

Part 1: Centum Languages



Indo-European Language Tree

Part 2: Satem Langu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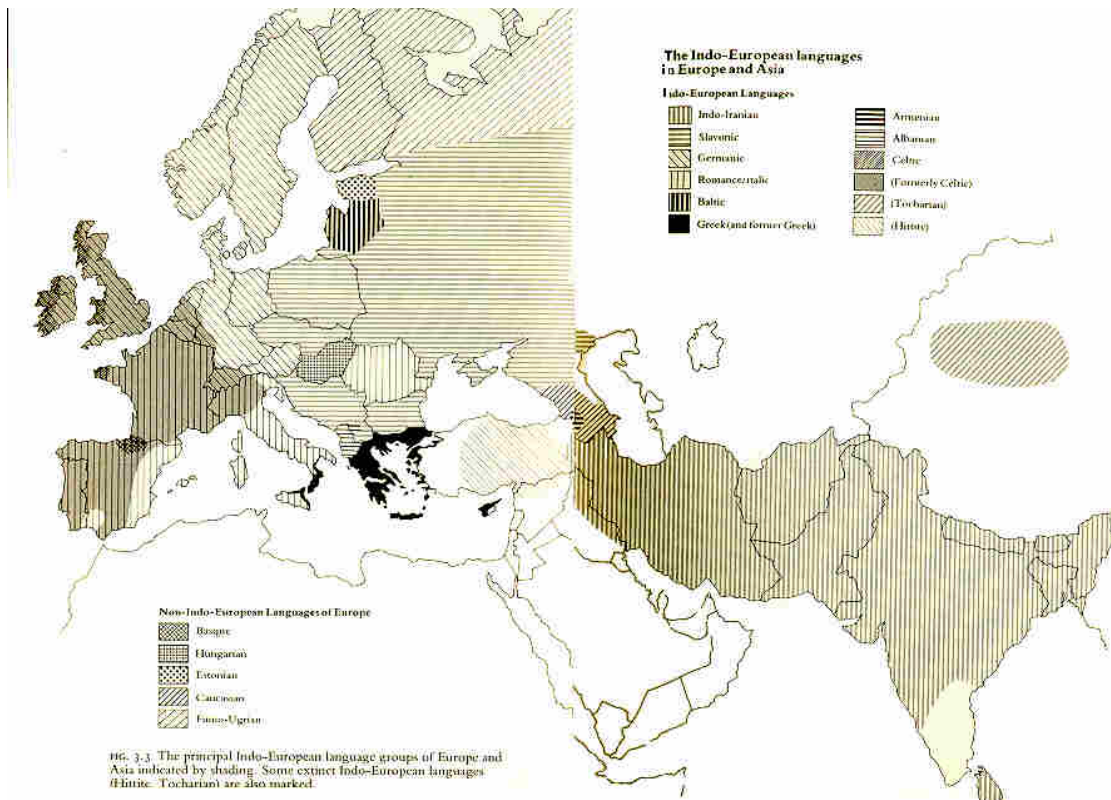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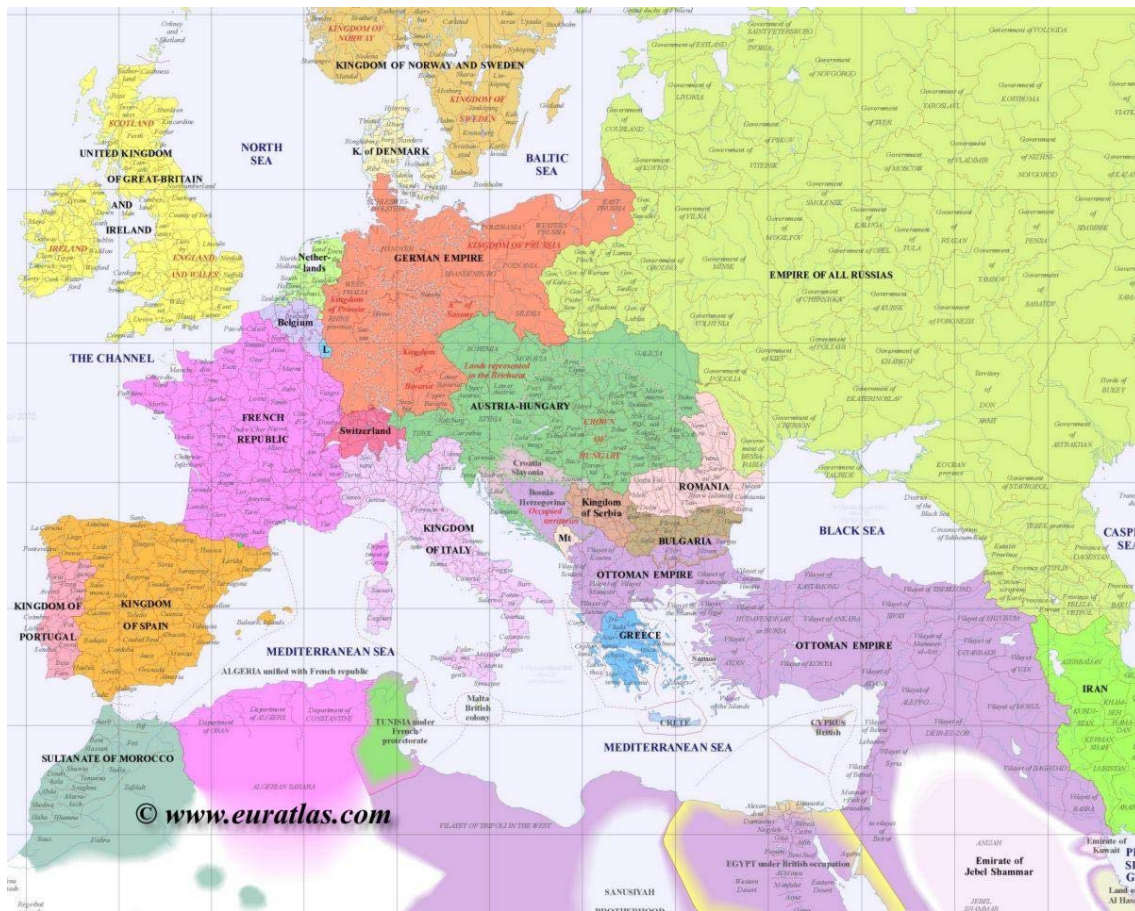




MAP 1. Distribution of Indo-European Languages in the First Millennium BCE



MAP 2. Distribution of Indo-European Languages in Modern Times (Old World)



1-3)가지들(branches).

인도 유럽어군의 주요 가지들은 주요언어들과 그것들의 입증과 더불어, 그것들의 가장 이른 역사적인 증거(attestation)의 순서에 따라 아래에 주어진다 (Kuryłowicz & Mayhofer 1968-86, Bednaczuk 1986-88)을 보라.

1-3-1)Anatolian.

Hittite(122쪽) 제국의 수도였던, 중부 터키 Hattusas(지금의 Boğazkale 그 당시 Boğzköy 근방)에서의 발굴들은 점토판에 **췌기문자(Cuneiform, 71, 13쪽)스크립트**로 쓰여진, 히타이트 내 광범위한 문서들을 파냈다. 문헌학적으로 우리는 고대 히타이트어(약 기원전 1700-1500)과 중기 히타이트어(기원전 1500-1350)과 신-히타이트어(1350-1200)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른 두 친족 언어 곧 Hattusas의 북서쪽에서 말해진 *Palaic*과 대부분의 남서 Anatolia에서 말해졌던 췌기문자 *Luvian*의 단편적인 유물들이 동일한 채원들에서 발견됐다. 북서쪽의 *Luvian* 형식은 **Trojans의 언어**일수도 있다.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방언은 (전에 hieroglyphic Hittite라고 불리웠던,)원주민의 그림문자 음절로 쓰여진 Hieroglyphic(29쪽) *Luvian*이다. 그것은 중기와 신-히타이트 시대로부터 그리고 북 시리아 지역의 수 많은 비문들(기원전 1000-750)로부터 입증됐다. 북서 Anatolia의 고전시대로부터 비문들이 Lycian(기원전 5-4세기)과 북쪽으로 더 나아가 서쪽 Lydian(기원전 6-4세기)에 있다. Lycian은 분명히 다양한 *Luvian*으로부터 발전됐다. 다른 아나톨리아어들은 아직 하위 그룹으로 구성될수없다.

1-3-2)Indo-Iranian(97쪽)은 **Indic**(또는 Indo-Aryan)과 **Iranian** 그리고 세계 *Nuristan*(Kafiri) 등의 큰 고대 집단들을 포함한다. Nuristani는 먼 북 아프리카 스탠과 이웃 파키스탄과 인도에서 현대에 확인된다. 가장 초기의 인도어는 Anatolian 텍스트들(기원전 약 15세기)로된 단어들과 이름들로 구성된다.

베다 **산스크리트어**로된 확장된 인도 텍스트들은 그것의 가장 초기 부분들이 아마 기원전 두 번째 밀레니엄의 후반부 편잡에서 작성됐을 **리그베다**와 더불어 시작한다. 그것들은 다른 베다들과 Brāhmaṇas와 Sūtras 등을 통해 약 기원전 500년까지 계속 이어지며, 그 언어는 Pāṇini의 문법 속에서 **고전 산스크리트어**로 규범화 되어 오늘날까지 학식있는 문어(literary language 文語)로 사용된다. 기원전 5 세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광범위한 중기 인도 문서들(Pali와 Prakrits)를 지니게 된다. 아주 많은 현대 인도-아리아어들은 기원후 1000 년 경부터 포착되기 시작한

다.

남동부 유라시아에 폭 넓게 걸쳐있어 한 때 광범위하게 말해졌던 **Iranian**은 짜라투스투라에 의해 작성된 찬양시(gāthās, 112쪽)-**Gathic Avestan**로 맨 먼저 포착된다.이것들의 날짜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기원전 첫 번째 밀레니엄의 더 젊은 Avestan보다 더 오래됐다. **고대 페르시아어**는 기원전 6-4세기의 Achaemenid 왕들의 기념비적인 비문들로부터 알려진다. 고대 페르시아어는 중기 페르시아어와 현대 페르시아어(Farsi)의 조상이다. 많은 다른 중기 이란언어들은 Pahlavi와 Parthian과 Saka와 Sogdian 등은 Seleucus 시대부터 포착된다. 이슬람 시대에 이르러 우리는 많은 현대 이란언어 중 몇몇을 처음으로 확인한다.

1-3-3)Greek. 처음으로 확인된 문서들은 겨우 1952 년에서야 해독된 음절어



Linear B[? 윗 왼쪽: 크레타 (Crete) 섬 Knossos에서 발굴된 것으로 초기 크레타인의 ‘hieroglyphic’ 스크립트로 쓰여진 점토판으로서 아직도 해독이 안 된 윗 오른쪽 Linear A 보다 이르다?(이 부호는 인터넷 출처를 나타낸다: 서버 프로그램언어 PHP)]로 기원전 13 세기부터 쓰여진 Mycenaean Greek이다. **Alphabetic Greek**은 호메로스의 시들과 더불어 시작, 기원전 800

년 경부터 연속적으로 확인되어, **고전기**와 헬레니스틱 (코이네, **koiné**) 기간을 거쳐 중세(Byzantine)와 현대에로 주욱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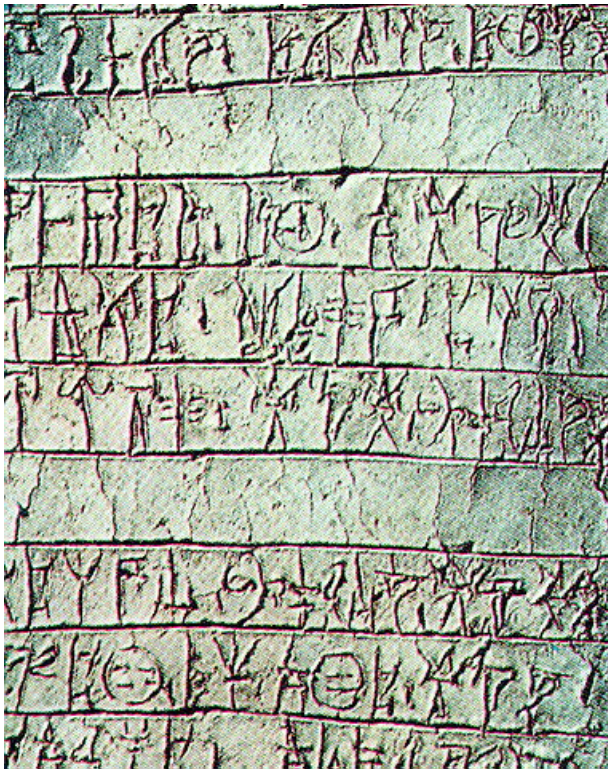
? **선형문자 B** — 1900 년에 고고학자 Arther Evans는 Crete의 Knossos에서 신비스러운 기호들이 새겨진 많은 점토판을 발견했다. 미노스 왕이 괴물 Minotaur를 감금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미궁(labyrinth, 迷宮)과 더불어 왕 미노스의 궁전을 발견했다고 믿으면서 비문(inscriptions, 碑文)들과 이 비문들이 제공하고 있는 언어들을 ‘Minoan’이라고 이름 붙혔다.

에반즈는 비록 제한된 성공만을 거두었지만 자신의 삶 나머지를 그 비문들 해

독에 바쳤다. 그는 그 비문들이 ‘*hieroglyphic*’(상형문자)와 Linear A와 Linear B라는 다른 세 가지 쓰기 체계들을 나타낸다는 것을 인식했다.

상형문자 스크립은 단지 인장석(seal stone, 印章石)에만 나타나지만 그래도 해독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해독되지 않은 **Linear A**는 그 상형문자로부터 전개되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Linear B는 아마 Linear로부터 전개되어 나왔을 것이다. 비록 그 두 스크립트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지만 말이다.

에반즈는 선형문자(Linear, 線形文字) B의 짧은 선은 낱말을 나누는 것들이라고 여겼다. 마찬가지로 그는 그로하여금 그 스크립트는 주로 그림문자(*pictographic*)라고 믿게끔 한 많은 그림문자들과 그리고 계산체계를 해독했다. 마찬가지로 그는 선형문자 B와 그리고 해독됐던 **키프로스 스크립트**(Cypriot script) 사이의 많은 유사점(Parallels)들을 발견했다. 이것은 **선형문자 B**에 의해 나타내진 그 언어



가 그리스어의 고대 형식이었던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인정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선형문자 B는 그리스어와는 관련없는 언어인 미노아 사람들의 언어로 사용됐다고 확신하면서 말이다.

1939년에 선형문자 B가 새겨진 많은 점토판들이, 선형문자 B는 단지 Crete에서만 사용됐다고 생각했던 에반즈를 많이 놀래키면서, 그리스 본토 Pylos(좌측 그림)에서 발견됐다. Pylos의 Mycenaean쪽에서 발굴된 점토판들은 일련의 다른 신들의 계보를 기록한다. 이것은 필로스 궁전 파괴 때 우연히 불에 의

해 구원된 것이었다.

Micheal Ventris(1922-1956)는 결국 1953년에 선형문자 B를 해독해 낸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아더 에반즈에 의해 조직된 미노아 세계 전시회에 수학여행 온 1936년에 폭발했다. 이후 17년 동안 벤트리스는 선형문자 B를 이해하는데에 고군분투했다. 처음에 그는 선형문자 B가 그리스어라는 데에 회의심을 품

었다. 비록 심지어 해독된 많은 낱말들이 그리이스의 원시형식(archaic form)을 닮았었지만 말이다. 후에 초기 그리이스어 전문가 John Chadwick의 도움으로 벤 트리스는 이유있는 의구심을 넘어서서 선형문자 B가 실로 그리이스어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래 그림1은 음절(syllabary, 音節)적인 선형문자 B이며, 그림2 선형문자 (Linear, 線形文字) B의 어표(logograms, 語標)들은 전체 낱말들과 교역(traded, 交易)항목들을 주로 나타내고 있다. 선형문자 주로 교역행위들을 기록하는 데에 사용됐으므로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어표들 몇 몇은 나타내어지고 있는 물건들(things)을 닮았기에 그림문자(pictograms)들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어표들이 해독됐던 것은 아니다.

𐀀	𐀁	𐀂	𐀃	𐀄	𐀅	𐀆	𐀇	𐀈	𐀉	𐀊	𐀋	𐀌
a	da	ja	ka	ma	na	pa	qa	ra	sa	ta	wa	za
𐀍	𐀎	𐀏	𐀐	𐀑	𐀒	𐀓	𐀔	𐀕	𐀖	𐀗	𐀘	𐀙
e	de	je	ke	me	ne	pe	qe	re	se	te	we	ze
𐀚	𐀛		𐀜	𐀝	𐀞	𐀟	𐀠	𐀡	𐀢	𐀣	𐀤	
i	di		ki	mi	ni	pi	qi	ri	si	ti	wi	
𐀥	𐀦	𐀧	𐀨	𐀩	𐀪	𐀫	𐀬	𐀭	𐀮	𐀯	𐀰	𐀱
o	do	jo	ko	ma	no	po	qo	ro	so	to	wo	zo
𐀲	𐀳	𐀴	𐀵	𐀶	𐀷	𐀸		𐀹	𐀺	𐀻		
u	du	ju	ku	mu	nu	pu		ru	su	t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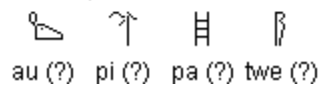
그림1: 음절적인 선형문자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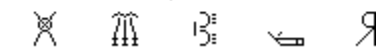
그림2: 어표로서의 선형문자 B

	A	E	I	O	U	A2	O2	U2
D								
J								
K								
M								
N								
P								
Q								
R								
S								
T								
W								
Z								

Other symbols



Unclassified symbols



선형문자 A - 선형문자

A를 선형문자 B와 구분시키는 특색은 다음과 같다:

- ㄱ) 선형문자 A는 기원전 약 1800 년 경부터 기원전 1450 년 사이에 사용됐다;
- ㄴ) 선형문자 A는 음절들을 나타내는 음성 기호들 60 개와 소리들과 구체적인 대상들 또는 추상적인 관념들을 나타내는 sematographic 기호들이 뒤섞인 스크립트이다.
- ㄷ) 많은 기호들이 선형문자 B에서 사용된 것들을 닮아 있으며 그리고 동일상 발음이 배정돼있다.
- ㄹ) 선형문자 A는 아마 교역의 기

록들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됐을 점토판들위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평 진행하며 쓰여졌다.

선형문자 A의 기호들을 어떻게 음역하느냐에 관한 일치는 있지 않다. 앞 쪽 좌측에서 보여지는 방법은 가능한 하나의 음역일 뿐이다.

Cypriot syllabary – 기원

키프로스 음절(Cypriot syllabary) 또는 Cypro-Minoan(키프로스-미노아) 글쓰기는 크레테의 선형문자 A 또는 가능하게 선형문자 B로부터 전개된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이것들의 정확한 기원들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말이다. 키프로스 음절문자는 기원전 약 800 – 200 년까지 사용됐다.

주목할만한 특색들로는 ㄱ) 보통 수평선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여진다. ㄴ) 낱말들은 분리(word breaks)되어 표시되지 않는다. 아래 키프로스 음절문자들은 해독되어야 한다(출처: <http://www.omniglot.com/writing/linearb.htm> 2005년10월23일) ?.

✳	┆	✳	↑	≠	∟	✳	⊥	Ω	V	✳)	∅
a	ta	ga	ka	pa	la	ma	na	ra	sa	va	xa	ya
✳	⌵		✳	⌵	8	✳	⌵	↑	≠	I	(
e	te		ke	pe	le	me	ne	re	se	ve	xe	
✳	↑	↑	∟	∟	∟	∟	∟	∟	∟	✳		
i	ti	ki	pi	li	mi	ni	ri	si	vi			
∟	⊥	∩	∩	+	⊙	∩	∩	∩	∩	∩	∩	∩
o	to	ko	po	lo	mo	no	ro	so	vo	zo	yo	
∩	⊥	✳	∟	∩	✳	∩	∩	∩	∩			
u	tu	ku	pu	lu	mu	nu	ru	su	vu			

1-3-4)Italic. *Old Latin*은 기원전 6 세기부터 기원전 3 세기까지 짧은 비문들에서 확인된다. 그로부터 계속하여 우리는 **classical Latin**의 풍부한 문서를 지니게 된다. *Oscan*과 *Umbrian* 등 다른 주요 Italic dialets은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까지 비문들에서 확인된다. 라틴어는 정복에 의해서 퍼지면서 다른 Italic 방언들을 갈아치우다가 결국 남 중앙 유럽 큰 지역에서 우세하게 된다. Portugal에서 Rumania에 이르는(지도2 참조) 중세와 현대 **Romance(로만스)** 언

어들이 바로 이 말해진(구어체, spoken) 언어들의 후손이다.

1-3-5) **Celtic** 언어들은 Iberian 반도로부터 남부 독일과 Po 계곡과 Austria를 거쳐 Danube 평원들에 이르러 중앙 Anatolia의 Galatia까지의 유럽 큰 지역에서 기원전 첫 번째 밀레니엄에 말해졌다. 우리는 지리학적으로 *Continental Celtic*(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 소멸됨. Gaulish, Celtiberian 등 등)와 전에 그리고 지금 British Isles에서 말해졌고 말해지고 있는 언어들인 *Insular Celtic*을 구분한다. 반도 켈트어, 후자는 Ireland의 **Goedelic(Gaelic)**와 Britain의 **Brythonic(British)** 두 그룹을 형성한다. Goedelic, 전자는 Irish(Primitive 또는 Ogam, 기원후 400-600)와 Old Irish, 600-900와 Middle, 900-1200 그리고 현대(1200+), 마찬가지로 Scottish Gaelic(1200+), 그리고 소멸된 Manx를 포함하며, Brythonic은 Welsh(Old, 기원후 8-12세기; Middle, 기원후 약 12-14세기; 현대) 더하기 Breton(Old와 Modern)과 소멸된 Cornish를 포함한다.

1-3-6)**Germanic**. 가장 초기의 대표적인 광범위한 EastGermanic은 기원후 4세기 성서번역으로부터 알려진 (그러나 소멸된)*Gothic*이다. 북부 독일어는 몇몇 Runic 비문들(3rd c. CE+)과 Old Norse(약 기원후 9-16세기)와 East(Danish, Swedish)스칸디나비아 언어들로부터 확인된다. 가장 이른 주요한 서부 독일어 기념물들은 Old English(약 700 CE+)과 Old High German(약 900+)으로, 중세 후기와 현대 형식의 영어와 Frisian과 Dutch와 Low German과 High German과 더불어 쓰여져 있다.

1-3-7)Armenian.

Classical Armenian은 기원후 5세기 성경 번역과 연이어진 문학, 그리고 여러 방언들로 말해진 중세와 현대 후손들, 특히 동부(Soviet)와 서부(Turkish와 diaspora 이후) 방언과 더불어 알려진다.

1-3-8)**Tocharian**은 Shinese Turkestan(Xinjiang) Tarim 호수의 동쪽(Toch. A)과 서쪽(Toch. B)으로부터의 기원후 6-8세기까지 날자 메겨지는 문서들 안에서 발견된다.

1-3-9)Balto-Slavic.

슬라브어와 발트어는 비록 몇몇 학자들이 그것들을 따로 분리하기는 해도 단일 한 하나의 인도유럽어 하위 그룹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Slavic은 고대 교회 슬라브어로 기원후 9 세기의 성서번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 동 슬라브어 (Russian, Ukrainian, Belorussian)와 서 슬라브어(Polish, Czech, Slovak 등)과 남 슬라브어(Slovene, Serbo-Croatian, Macedonian, Bulgarian)로 방언의 나뉘는 아마 기원후 첫 밀레니엄 중반부 보다 더 오래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Baltic language들은 소멸된 Old Prussian(14-17세기)과 융성하는 동 발트 언어들 Lithuanian과 Latvian(16세기 이후)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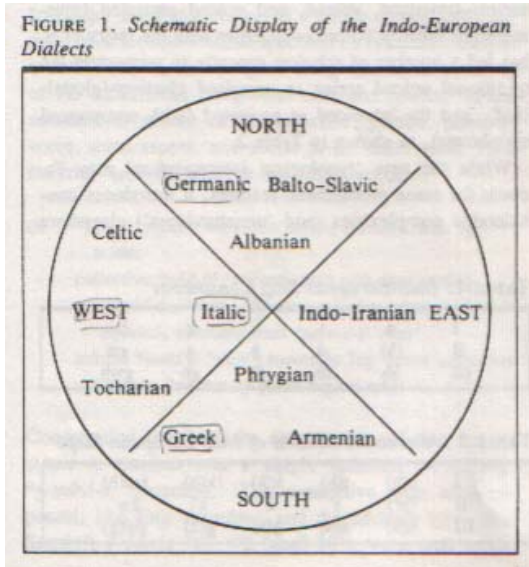
1-3-10)Albanian은 단지 15세기부터 북쪽 방언(Gheg)과 남쪽 방언(Tosk) 등 두 개의 방언으로만 알려진다. 몇몇 학자들은 Albanian을 역사 이전의 Eastern Balkan Language의 후손으로 본다.

분명히 인도유럽어이지만 그 기원에 있어 논쟁이 많은 다른 단편적으로 확인된 (attested)언어들은 Phrygian(서 중앙 Anatolia, 기원전 8-5세기, 기원후1-2세기의 짧은 비문들)와 Messapic(이탈리아의 ‘발 뒤꿈치’(heel))이다. 양자는 때로 단지 지리학적인 이유만으로 연약하게 이해된 고대 발칸(Balkan) 언어들과 짝지어진다.

1-4)하위 그룹화(Subgrouping).

인도 유럽어의 열 또는 열 한 개 확인된 가지들은 큰 하위 그룹들로 배열되면서, 말하는 자들이 그것들의 역사적인 확인지역에 도달하기 오래 전의 한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원시 인도 유럽어 내부의 방언적 나뉘들을 반영한다. 인도유럽어들이 수 천년에 걸친 크고 작은 일련의 이주(migrations, 移住)들에 의해 유럽과 남서 아시아에서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확보한 땅으로 가져와졌다는 것은 고고학적인 기록으로부터 선명해진다. 시베리아 스텝지대와 사해의 동쪽이, 설령 인도유럽어족의 궁극적인 ‘요람’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원전 다섯 번째 밀레니엄 중반부에 발칸을 향한 서쪽으로 그리고 넘어가 아나톨리아에로 그리고 남쪽으로 그런다음 이란과 인도를 향한 동쪽으로 움직이기 위한 의의있는 무대지역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주장한다. 인도 유럽어의 방언들의 단절이 이러 저러한 무대 지역

에서 생겨났을 것처럼 보인다. 원시인도유럽어는 의심할것도없이 유라시아의 드넓은 공정한 지리학적인 지역에 걸쳐 말해졌다. 우리가 재 구성하는 ‘원시인도유럽어’는 일천년 이상의 시간적 연속 속에서 말해진 언어를 확실히 지시한다. 형태론과 음성학에 있어서의 많은 시원적인 특색들은 Anatolian을 다른 가지들과 분리시켜서 그것이 가장 이른 것임을 가리킨다. 그러나 아나톨리아어는 원시인도유럽어로부터 여전히 파생되어 잔존한다. 그리고 추정적인 ‘Indo-Hittite’로부터 아나톨리아어와 인도유럽어를 파생시켜, 전자를 후자의 자매언어로 만들려는 주기적인 노력은 동력(following)을 얻지 못한다.



공유된 많은 새로움들과 다른 공통 특색들을 토대로하여, 우리들은 캠퍼스의 점들에 상응하는 사분면(quadrants, 四分面, 왼쪽 그림) 안에 존속하는 열 개 가지들 사이의 방언적인 유사성들을 도식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리라. 각 가지는 연해있는 사분면 안의 가장 가까운 가지들과 어떤 특색을 공유한다. 아나톨리아어의 가장 근접한 유사성은 서부 그룹과 함께한다.

1-5) 재 구성된 원시-인도-유러피안(Proto-Indo-European).

다음의 단락들은 재구성된 원시인도유럽어를 음성학적으로 그리고 형태론적으로 논의한다. 세부사항을 위해서는 특히 Brugmann & Delbrück 1897-1916, Meillet 1937, Kuryłowicz & Mayrhofer 1968-1986, 그리고 Gamkrelidze & Ivanov 1984를 참조하라.

1-5-1)음성학.

인도 유럽어의 음성학적인 체계 안에서는 (파열음과 치찰음)obstruents과 후두음(laryngeals)들과 모음들과 자음들로 구분된다. 파열(stop) 자음들의 꽤 부유한 체계가 다섯 조음점들(points of articulation, 調音點) 곧 순음(labial)과 apico-dental(아피코-치음: 윗니 front를 혀의 apex(정점>apico)를 붙였다 떼어내면서 소리 냈)과 연구개음(velar)과 labio-velar(입술-연구개음: 입술을 둥글게하면서

혀의 뒤쪽을 입 천장 연구개 부위 가까이로 움직이는 가운데 나는 소리)과 그리고 조음(調音)의 세 방식(manner) 곧 무성음과 유성음과 기식유성음(voiced aspirated, 氣息有聲音)을 가지고 전통적으로 재구성됐다(아래 도표2 참조)

이런 풍부한 파열음들과 나란히 단지 하나의 단일한 계속음(continuant)— 이음(異音, allophonically)적으로 [z]로 유성음화되는 치찰음(sibilant)이 있다. 유성순음(labial, 脣音)은 부적절하게 드물다. 거의 모든 언어들은 tectals 또는 후설음(dorsals, 後舌音; 후음, gutturals, 喉音)에 있어서의 전설/후설(front/back)의 대조를 위한—서쪽 방언에서는 k vs. k^w와 동쪽 방언에서는 \hat{k} vs. k— 좋은 증거를 보여준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p t k k^w 라는 단지 네 개의 조음점들만을 추측한다. 그러나 Luvian에서의 새로운 증거는 다른 논의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본디 세 가지 길의 대조 \hat{k} k k^w였던 전통적인 재구성을 지탱할수도 있으리라. 대부분의 서구 방언(라틴어 ‘hundred’로부터 온 소위 centum 언어, 122, 124, 125쪽)들은 \hat{k} k > k로 합병하는[즉 \hat{k} k를 k로 합병하는] 반면, 동부 그룹들은 \hat{k} k^w>k로 합병한다[\hat{k} k^w을 k로 합병한다](Avestan satəm ‘hundred’에서 온 satum 해결). 후자의 경우, 전설 경구개음(front palatals, 前舌 硬口蓋音)들은 더 나아가서 처음에는 파찰음(affricates, 破擦音)들로 그 다음에는 치음들로 발전했다. 무성음과 유성음과 유성기식음 (voiced aspirated) 이라는 일련의 세 가지 것의 유형론(topological)적인 드뭇음(‘unnaturalness’, rarity)은 b의 드뭇음과 더불어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아래 도표2에서 보여진 것처럼, 최근에 전통적인 일련의 유성음들을 후음화된 방출 무성음[unvoiced ejective(glottalized)]으로서 그리고 무성음을(기식화되지 않은 이음, allophones, 異音과 더불어) 기식화된 것으로서 재 해석하도록 이끌고 갔다.

도표1: 인도-유럽어 파열음들(Stop Consonants)					
I	p	t	\hat{k}	k	kw
II	(b)	d	\hat{g}	g	gw
III	bh	dh	\hat{gh}	gh	gwh

도표2: 인도-유럽어 파열음들의 선택적인 도식					
I	p(h)	t(h)	ĥ(h)	k(h)	kw(h)
II	(p')	t'	ĥ'	k'	kw'
III	b(h)	d(h)	ĝh	gh	gw(h)

몇몇 문제점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론적인 해석’은 아주 복잡함들(그리고 ‘부자연스러움’)을 그 체계의 다른 곳에서 이끌어들이는다. 여전히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해결을 기다린다(Polomé 1982), Gamkrelidze & Ivanov 1984).

‘후두음’(laryngeal, 목청소리, 喉頭音) 이라는 용어는 논쟁적인 음가의 h- 같은 일련의 소리에 느슨하게 적용된다. 그것들은 여기에서 h₁ h₂ h₃ 이라고 표기된다. 같은 표기법(notations, 表記法)들은 a₁ a₂ a₃과 E A O이다. (어떤 학자들은 단지 하나의 후음만을 추측하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넷 또는 그 보다 많은 후음들을 추측한다.) 두 개의 후두음 h₂ h₃은 각기 a 또는 o에게 이웃 모음 e 색을 칠하는 속성을 그 원시-언어에서 지녔다. 더 후에 방언들이 분리되는 동안 또는 분리된 후에 후두음들은 환경과 방언에 의존하는 다른 음성학적이 귀결과 더불어 손실되는 경향을 보인다. 어떤 후두음이 충분한 모음 e 또는 색칠된(colored) a 또는 o 에 선행할 때 그리고 비-음절적인 것이 잇따를 때, 그 손실은 길어지는 보상에 의해 긴 모음 ē/ā/ō로 된다. 초기 역사적 방언들의 대부분의 긴모음들은 이런 재원으로부터 온다.

R로 기호화되는 ‘유성음’(sonants)들 이라는 용어 아래에 두 개의 비음(nasals, 鼻音) m n과 두 개의 유음(liquid, 流音) r l과 반모음 j(=y)와 u(=w)이 그룹지워질 수 있다. 이런 원시인도유럽어 단음(phones, 單音)들은 위에서처럼, 비-음절적인 것으로서 또는 (/m n r l/ 더하기 /i u/로 옮겨써지는) 음절로서, 해당 문맥에 따라 기능할 수 있다. 그래서 ‘개’(dog) 라는 낱말의 경우 소유격(2격) 단수 -es 앞의 k_{un}은 *[k_{un}és](Ved. súnas)로 그러나 inst. pl. 앞에서는 *[k_{un} bhís](Ved. śvábhis)로 나타난다. 비-음절적인 그리고 음절적인 다양함(variants)들의 인도유럽어의 상호 보충적인 분포는 갈라진(divergent) 반사음(reflexes, 反射音)들인 R와 R₁를 갖는 모든 인도유럽어 방언들에서 폐기된다.

원시인도유럽어 모음들은 e a o, 더하기 반모음 j(=y)와 u(=w)와 더불어 상호보

충적인 혀의 위치가 높은 고모음(high vowels, 高母音) i u이다. 다섯 모든 모음들은 긴음과 짧은음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모음들은 형태-음성학적으로나 분포적으로 한 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인(primary) 단음(short 短音) a와 장음 ā의 경우 어떤 것들은 아주 자주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수의 어근들에게만 단지 재구성될 수 있다. 기본적인 ī ū도 비슷한 방식으로 드물다. 자주 자신들의 짧은 짝들과 닮은(comparable) 긴 모음들은 후두음의 소실과 (i u를 포함) 선행하는 모음들의 보상적인 길어짐—이러한 길어짐은 개별 방언들의 역사에 고유하게 속한다— 후에만 단지 발견된다. //

히타이트어 텍스트 발견의 주요한 결과는 토탈적인 갯 수의 음소들을 지녔다고 지금 믿게 하는 인도-유럽어 음성학적 체계의 토탈적인 재 구성이었다. 음소의 그 토탈적인 개수는 2의 제곱(power), viz. 2⁵; 곧 p b; t d; k g; qu gu; H₁ H₂ H₃; s; r l; m n; j̣ u; ě; H₁ 또는 H₂ 또는 H₃ 또는 j̣ u r l m n과 묶어지는 ě; r l m n; j̣ ũ; ī ū.

// 단일한 인도유럽어 낱말의 엑센트는 Balto-Slavic과 Anatolian과 Germanic으로부터 마찬가지로 Vedic과 Greek으로부터 재 구성될 수 있다. 강세 없거나(atonic) 또는 전접(enclitic, 前接)적인 형식들과는 별도로 각기 인도유럽어 낱말들은 자신의 위치가 낱말 형성과 변화의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그리고 자신의 현재 또는 부재가 구문론적 규칙들의 한 기능인 단일한 엑센트를 지닌다. 전승 체계는 심지어 위에서 언급된 방언들에서조차 심오한 변화를 겪는다. 나머지 방언들은 그것을 더 새롭고 독립적인 엑센트 체계로 바꾸었다. //

1-5-2) Morphophonemics(형태음소학).

인도유럽어는 모음교체(ablaut 또는 apophony)라고 용어화되는 형태론적 기능들을 표현하고 있는 모음 바꾸는(vocalic alternations) 선택 체계에 의해 도드라진다(profoundly marked). 기본형은 어떤 조건 하에서는 전적으로 사라져버리며 어떤 조건 하에서는 o로 나타날 수도 있는 모음 e이다. 이런 형들은 zero(제로)-등급과 o-등급과 e-등급(grade)을 각각 드러낸다고 말해진다. 그래서 'knee'(무릎)에 해당되는 단어는 다음처럼 나타난다:

ㄱ) *ĝenu: Hitt. genu, La. genu

ㄴ)*ġonu: Ved. jānu, Gk. gónu

ㄷ)*ġnu-: Ved. jñu-bádh ‘Kneeling’, Gk. dat. pl. peri gnusi ‘about the knees’

보다 더 광범위하게 제한 되지만 여전히 그 원시-언어를 위해 재구성될 수 있는 교체모음들 ē ō는 ‘길어진 등급’(lengthened grade)이라고 용어화된다. ‘knee’와 동족어(cognate, 同族語)인 Gk. gōnía ‘angle’ < *ġōnu와 비교해보라.

그 어근이 R로 기호화되는 ‘유성음’(sonants)들 중의 하나를 포함할 때, 제로-등급 형성은 규칙적으로 비-음절적인 것 앞에 모음적인 기능을 하는 그 유성음을 보여줄 것이다. *bher- (Eng. bear), *bhor-(Eng. bore), *bhr- (Eng. born)을 비교하라. 긴모음을 지니는 표면상(apparent)의 어근들은 축약(contradiction)으로부터, 즉 긴 후두음 뒤에서 보상적으로 길어짐에 의해서 생겨났다. 모음교체 패턴들은 더 오래된 축약되지 않는 형식들에서 선명해진다:

ㄷ) dō- ‘give’ < *doh₃-, La. dō-num ‘gift’
제로-등급 *dh₃- (to-), La. datus ‘given’

긴 ū와 ī는 마찬가지로 축약으로부터 생겨날 수 있다: 충분-등급(full-grade) peuh- ‘purify’ (Ved. pávi-tram ‘sieve, 체로치다’는 La. pū-rus ‘pure’에서 축약된 제로-등급 puh-를 지닌다.

독일어 **강변화 동사**는 인도유럽어 모음교체를 선명하게 보존하다. 그러나 그것은 본디 체계의 범위와 특색에 관한 빈약한 반성을 제공할 뿐이다.

1-5-3)형태론(Morphology)

특히 자신들의 초기 무대에서 인도유럽어들은 구문론적 유형의 부유하고 복잡한 형태론을 공유한다. 엑센트(accent, 강세)에 의해 강화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단어는 형태론적인 다양한 요소들과 과정들이 구문론적인 기능들의 우선적인 구현형(exponents, 具現形)들이 그러한 것들이었다. 이 어근에서의 비교 방법의 성공 대부분은 특별한 형태론 안에서의 언어들 사이의 일치(엄밀함(precision)과 수로부터 온다. 다양한 방언들에서의 ‘dog’와 ‘slay’에 해당되는 낱말들의 부분적인 페러다임들인, 재구성된 것으로서의 아래 도표3을 비교하라.

	Hitt.	Gk.	Ved.	Lith.	OIr.	PIE
1격	kuwas	kúōn	ś(u)vá	šuō	cú	*k̂(u)uó
4격	kuwanan	kúna	śvānam	šuni	coin	*k̂uón-m _L
2격	kūnas	kunós	śúnas	šuñs	con	*k̂un-és
		Hitt.	Ved.	PIE		
직설법3인칭단수현재		kuenzi	hánti	*gwhén-ti		
직설법3인칭복수현재		kunanzi	ghnánti	*gwhn-énti		
도표3: 인도유럽어 ‘개’와 ‘죽이다’의 부분적인 범형들						

인도유럽어 형태론의 세 영역들은 어형변화(Inflexion)와 파생(단어형성)과 복합(Compositon)이다. 문장 부분사들(sentential particles)과 접속사들과 (전동사(preverbs, 前動詞)들과 후치사들과 전치사들과 부정사(negations, 否定詞)들과 같은) 부사와 비슷한 형식들(quasi-adverbials, 類似副詞)을 포함한 제한된 부류들을 제외한 모든 단어들은 변한다(inflected). **낱말의 변화 구조는 어근(Root) 더하기 하나 또는 더 많은 접미어들(또는 단일한 삽입사(infix, 挿入辭)) 더하기 어미이다.** 어근은 접미사(들)에 의해 제공되는 더 나아간 문접적 의미들을 지니는 기본적인 사전적 의미론의 핵심(Kernel)이며, 이것에 붙는 문법적인 의미들이 류형적으로 그 단어의 말의 부분들을 규정한다. **어근(Root) 더하기 접미사는 파생의 영역이었던 어간(stem)을 구성했다.** 열린 세트의 어간들은 그 언어의 사전적 기본 재료를 구성했다. 각기 어간은 문장 안에서의 자신의 구문론적 기능을 특수화시키면서 그것의 범주들의 문법적인 의미를 배정하는 굴절(inflexion, 活用)영역인 단일한 어미를 받아들였다. 굴절 범주의 문법적인 의미들로는 명사에서의 격과 수 그리고 형용사의 성 그리고 한정동사의 인칭과 수와 태와 시제/상(tense/aspect)과 법(mood)이 있다. 그래서 어근 *uéd-는 아래의 단어들을 형성했다:

- ㄱ) *uód-r_L ‘water’, 중성명사 단수 주격/목적격 제로 어미와 함께.
collective *uéd-ōr ‘water’, 마찬가지로 형용사 제로 어미와 함께 *uēd-ó-s ‘wet’, 형용사 남성 주격 단수 *ud-r-ó-s ‘aquatic’, 명사화된 *úd-r-o-s ‘otter’
- 삽입된 *unéd-ti ‘wets’, 능동직설타동사3인칭 (음성학적 규칙에 의해 *unetsti)

복합(Composition)은 두 개의 사전적 어간들 또는 관념들(notions)을, 예를 들어 *n₁-udró-s ‘waterless’와 같이, 활용하는(inflected) 단일한 낱말로 결합하는 것을 포함한다. Eng. barefoot(맨발)와 같은 복합의 소유 유형과 Sanskrit dvádaśa ‘12’(‘2 [그리고] 10’)과 같은 복합의 부가 유형은(additive type) 그 원시-원어에서 잘 나타났다. 전자(the former, 前者) 유형은 특히 사람의 이름들에서 흔했다. 몇몇 인도유럽어들은 복합을 확장시켜 나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전시켰지만 다른 인도유럽어들은 철저하게 그 복합에 제한을 가하거나 또는 제거시켰다.

생존하는 8 가지들 인도유럽어 대부분 형태론적 체계는 실제로 변경됐으며 실천적으로 활용 중에 있다. 명사에서의 격 체계는 자주, 성(gender, 性)체계에서처럼, 감소되거나 재 구성되거나 제거됐다. 쌍수(dual number, 雙數)는 사실상 제거됐다. 종합적인 형성을 넘어서서 분석적인 그것으로의 확장은 보조사들의 팽창들과 더불어 8 가지 모든 가지들에서 문서로 보여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러한 모든 가지들에 편재하는 성향(trend, 性向) 또는 정향(drift, 定向)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의 다른 발생적인 어군(families, 語群)들에서 관찰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두드러지게 표시되는 불규칙성 또는 예측불가능성을 위한 절약(tolerance)에 의해 균형잡혀진다. //

1-5-4) 공통의 특성

인도유럽어의 ‘어근’(roots, 이것들은 문법적인 추상들이다)은 자음+모음+자음(예를들어 *H₁es-, to be)패턴을 지니며 그리고 (모음 *ě*는 어근과 접미어 양자에서 손실되며 자음 *u*는 모음화되는, 산스크리트어 yug-, 그리스어 ζυγ-, Latin에서와 같은 예를들어 *j₁eu₁-eg처럼) 모음+자음 패턴의 접미사에 의해 공통으로 확장된다.

인도-유럽어들은 (어간stems들을 형성하기 위한) 낱말 형성의 굴절(inflectional)방법을 사용하며, (예를들어 동사의 능동과 수동형 또는 명사의 행위자와 당하는자와 같은) 기능과 관계를 지시하기 위한 더 나아간 형식들이 있다. 예를들어 모두 ‘yoke’(멩에)를 의미하는 Sanskrit yugám, Latin iugum, Old English geoc; 또는 Greek ζευγος(neuter), Latin iuxmentum(beast of burden),

(‘to yoke’, 끝나는 행동을 가리키는 그래서 라틴어에서는 현재시제로 되는, 비음 삽입어와 더불어) Latin *iungere*. **구문론**에는 어순(*word order*, 語順)이라는 관념이 있으며, 특히 명사들과 대명사들과 형용사들과 동사들의 체계를 구성하는 다른 어형론들(*accidence*)이라는 관념이 있다. 2격(*genitive*)은 영향 또는 행위의 영역을 가리키므로, 2 개의 개념이 서로에게 접촉 (*impinging*)할 때 2 격이 사용된다. 예를들어 (비록 그 교차(*intersection*)가-저자, 소유, 또는 아닌 무엇-이 문맥에 의해 반드시 선명해지더라도) *patris liber* “father’s book” 또는 *capitis damnare* “to condemn in the matter of a capital offense”, 즉 “condemn to death.”.

Edward Llwyd는 자신의 *Archaeologia Britannica*(1707)에서 비록 썩 체계적이지는 못하지만, Germanic, Celtic, Greek 그리고 Latin 낱말들을 비교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1786년에 Willan Jones 경은 Sanskrit와 Greek와 Latin과 Germanic 사이의 본질적인 역사적 관계에 관한 유명한 관찰을 행했으며, 1816년에 Franz Bopp은 부분적으로 파생언어들의 기록된 형식들 안에 있는 증거로부터 부분적으로 인도-유럽어의 동사체계는 재 구성될 수 있을 것임을 봤다. 그리고 일단 *sarpa* “serpert.”, *pitar* “father”, *asti* “he is”, *dvā* “two”, *trayas* “three” (cf. Latin *serpens*, *pater*, *est*, *duo*, *tres*)과 같은 것들이 서구세계에 알려지자마자 산스크리트어의 어휘 목록들이 급속하게 모아져 분류 정돈된 결과 많은 수의 규칙적인 참고목록(*correspondences*)들이 확정됐다. 이렇게 확정된 것들 중 어떤 것은 결코 의문시 되지 않았다. 사실 만약 현실적으로 있든 있지 않든 세롭게 발견된 아직 해독되지 아니한 어떤 것이 적절하게 아 프리오리 하게 적절한 인도유럽어로 나타나기만 한다면, 해독을 위하여 그 언어에 적용될 수 있을 많은 기준들(*criteria*)이 지금은 존재한다. 이런 기준들은 ㄱ) 동사 ‘to be’의 형식들(이것들은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ㄴ) 친족(*kinship*) 용어들; ㄷ) 수사들; ㄹ) 어형론(*accidence*), 특히 동사의 인칭어미들; 예를들어 Sanskrit *bháranti*, Greek *φέρουσι* (후에 *-ουσι*), Latin *ferunt*, Gothic *baírand* Old Church Slavonic *bértō*, 이 단어들은 모두 “they carry”를 의미한다; ㄹ) 대명사 형들; ㅂ) 종합적인 syntactic 기능; 예를들어 회구법의(온화한 명령 또는 자연스런 장래성).

항상 선명하게 ‘fox’(여우)와 구분되는 것은 아닌 ‘wolf’(늑대, 울프) 라는 이름, 하나의 낱말을 예시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울푸는 원시-인도-유럽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 동물 자체와 친숙했다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의 거주 지역에 살았을 것임을 암시하는(to suggest)규칙적으로 발전된 형들로 충분히 폭 넓게 분포된

낱말이다. 그래서 Sanskrit vr̥ka-, Greek λύκος, Latin (Sabine?) lupus, Gothi wulfs, Old Church Slavonic vlǫkŏ, Lithuanian vilkas. 그리스어 ἀλώπηξ (fox)는 아마 이태리어(라틴어) uulpes “fox”와 확실히 관련된다. 그러나 흥미로운 어떤 일탈(divergences)이 있다: Swedish와 Norwegian은 wolf에 해당되는 varg “the villain,” “criminal”을 사용하며, Irish는 fāel과 (현대 Irish) fael chū을 사용한다; “wolf”(fāel의 어원론은 알려져있지 않다)의 감각에서의 cū allaid(“wild dog”)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대 Irish mac tīre(문자적으로 “son of the land”)를 비교하라

(빈번히 Uncle Remus에서 처럼) 인간존재(human being)를 나타내기 위해 동물들의 이름들을 사용하는 것은 공통이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Sanskrit Vr̥ka-karman과 Vr̥ka-bandhu, Greek Λυκοῦργος, Λυκόφρων, Λύκος, Serbian Vuk와 Vukovoj, Old High German Wolf-arn, Wolf-bado, Wolfo, Gothic Wulfila, modern German Wölflin과 영어 wolf(e)를 별명으로 지닌다. 이것은 거의 마치 그 wolf가 식용(食用) 동물일 것처럼 여겨지지 못하게 한다. 오히려 울프는 지도자 또는 토템(totem)으로 여겨진다. 이와 동일한 길에서 이탈리아 부족 Hirpini는 자신들의 이름을 Romulus와 Remus가 그녀-울프(she-wolf)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전설, 현대 인도에서 꾸준히 우화로서 제공되는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hripus “wolf”로부터 파생시켰다. werewolf(Gothic wair “man”) 라는 관념은 사람을 wolf로 그리고 다시 거꾸로 울프를 사람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의지적 능력을 지니는 존재(being) 라는 관념이다. 동물들 또는 식물들과 나무들의 이름들의 단순한 목록으로부터 결론들을 이끌어내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 마찬가지로 이런 이름들이 단지 동물학적이거나 농경적인 목록 이상의 문맥 안 함축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필요하다.

//1-5-5)현재의 경향.

음성학과 형태론에 덧붙여 인도-유럽어학자들은 비교역사적인 구문론과 구문론적 재구성에 현실적인 관심을 지니고 있다. 인도유럽어들의 범위와 그것이 확인된 시간의 깊이와 그것들의 관찰 다양성과 구문론적 유형의 변화는 인도유럽어 학자들로 하여금 보편적인 구문론과 구문론적 변화에 관한 가정들을 위한 이상적인 검증(testing)의 토대를 구축하도록 이끈다.

역사적인 언어들의 사전들 이라는 어원론에로의 굉장한 도전이 남아있다(Buck 1949, Pokorny 1948-69, Watkins 1985를 보라). 문화에 관한 집중은 인도유럽어 민족학적이미론(ethnosemantics)를 두드러지게 한다(Benveniste 1969,

Gamkrelidze 1985 & Ivanov 1984).

마찬가지로 동사 학(verbal art)도 역사적이고 비교학적인 측면을 지닌다. 인도유럽어 시학은 천여년 넘게 확장된 예술적인 텍스트들의 엄청나게 부유한 전통을 탐구한다(polomé 1982).

인도유럽어와 Uralic과 Afro-Asiatic(또는 바로 Semitic-Hamitic)과 Kartvelian과 Altaic과 Dravidian과 다른 어군(families, 語群)들 또는 큰 어족(Phyla, 語族)을 연결하는 Nostratic과 같은 더 크고 더 포괄적인 ‘대-어군’(Macro-families)을 발전시키려는 시도와 더불어 몇몇 최근의 작업은 외연이 더 넓은(distant)비교를 행해 왔다. 아직 이러한 노력들은 사변적인 수준에 머무른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발생 언어학적인 관계의 타당한 가정들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기 전까지 더 나아간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언어학적인 탐구의 이런 모든 거리에서의 진보는 연구대상에서 인정된 복잡함의 정도에 비례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그리고 이루어질 것이다.

1)인도 유럽어족 1

- 1-1)가능한 근원들 2
- 1-2)발견들과 해석의 문제 4
- 1-3)가지들 11
 - 1-3-1)Anatolian ... 11
 - 1-3-2)Indo-Iranian ... 11
 - 1-3-3)Greek 12
 - 1-3-3-*)선형문자 B ... 12
 - 1-3-3-*)선형문자 A 15
 - 1-3-3-*)키프로스 음절어 16
 - 1-3-4)Italic 16
 - 1-3-5)Celtic 17
 - 1-3-6)Germanic 17
 - 1-3-7)Armenian 17
 - 1-3-8)Tocharian 17
 - 1-3-9)Balto-Slavic 18
 - 1-3-10)Albanian 18
- 1-4)하위 그룹화 18
- 1-5)재구성된 인도-유럽어 19
 - 1-5-1)음성학 19
 - 1-5-2)형태음소학 22
 - 1-5-3)형태론 23
 - 1-5-4)공통의 특성 25
 - 1-5-5)현재의 경향 27

그림 지도 차례

- 1)인도 유럽어 지도 1
- 2)인도 유럽어들의 시간표 2
- 3)인도유럽어의 고향지도 3
- 4)인도유럽어의 계보(Satem과 Centum) 8
- 5)기원전 첫 밀레니엄의 인도유럽어 분포지도 9
- 6)현대의 인도유럽어 분포지도 9
- 7)현대 유럽지도 ... 10
- 8)현대 인도유럽어 지도 10
- 9)고대 그리스 선형문자 B 사진 12
- 10)고대 그리스 선형문자 B 사진 2 ... 13
- 11)고대 그리스 선형음절문자 B의 음가 14
- 12)고대 그리스 어표선형문자 B 15
- 13)고대 그리스 선형문자 A 15
- 14)키프러스 음절문자 16
- 15)인도유럽방언들의 친소관계 19
- 16)인도유럽어 파열음들 ... 20~21
- 17)인도유럽어의 어형변화표 24